

벽화의 노후주거지 재생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eneration Effect of Mural Paintings
on Decrepit Residential Areas

주저자 : 김광일(Kim, Kwang il)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신저자 : 김광일(Kim, Kwang il)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kimki@deu.ac.kr

본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0AA217)

목차

- 1. 서 론
- 2. 노후주거지 재생과 벽화
 - 2.1. 노후주거지 재생의 의미
 - 2.2. 벽화에 대한 이해와 공공성
 - 2.3. 벽화 제작방법에 따른 분류
 - 2.4. 노후주거지 재생의 공공성
- 3. 벽화마을 탄생과 현황
 - 3.1. 노후주거지 벽화마을 현황
 - 3.2. 대표적 벽화마을 사례
 - 3.3. 문제제기
 - 3.4. 마을벽화 제작 참고사례
- 4. 결 론

참고문헌

(요약)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 우리 나라의 주거지는 1950년대 이후 지어진 구시가지와 2000년대 들어 첨단공법의 초고층 아파트가 같은 도시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이제는 기존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는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후주거지의 재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주거지 재생방법으로 벽화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 낡고 노후한 마을의 벽면에 벽화가 그려지고 벽화마을로 불리는 곳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벽화마을들의 벽화는 재료의 단순화와 무계획적 시공으로 노후주거지 재생에 효과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존 벽화마을의 벽화들은 대부분 페인팅 기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되어 페인팅 작업 이전에 밑바탕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함으로 벽화의 수명이 짧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 다른 시각적 공해로 전락하였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생활 침해라는 또 다른 불편으로 다가왔다.

노후주거지 벽화 도입은 주민 주도로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벽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과도한 치장은 지양하여야 하며, 장기적 보존이 가능한 재료로 작품성 있는 벽화가 제작되어야 벽화가 노후주거지 재생에 효율성이 높을 것이며, 쉽게 잊히지 않는 벽화마을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벽화, 주거지, 재생

(Abstract)

With social changes followed by quick development of economy, there are old towns made after 1950s and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made by advanced methods of construction in 2000 in Korean residential areas. A lot of new towns have been developed and many researches on urban regeneration developing the existing towns newly are being carried out with a lot of interest. In this process, the regeneration work of decrepit residential areas is also being carried out actively. Mural paintings are most utilized to recycle most of decrepit residential areas. It is in fashion that old and decrepit villages of which mural paintings are pictured on the wall are called 'mural painting vill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ing cases were as follows. The mural paintings of mural painting villages scattered nationally did not play an effective role in regeneration decrepit residential areas because of simplicity of materials and construction with no planning. As the mural paintings of the existing mural painting villages were made by painting skills for a short time and the treatment of foundation was neglected before the painting work, they had a short lifespan and was fallen into another visual pollution, differing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s time went on and gave real dwellers another convenience which was invasion of privacy.

To introduce the mural paintings of decrepit residential area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more long-term and planning investment than led by residents and excessive decoration must be avoided to preserve the original function of walls and mural paintings must be well made by materials for long-term preservation. At this time, mural paintings will have higher efficiency in regeneration decrepit residential areas and give a lot of helps in improving residents' living conditions through an easily unforgettable mural painting village.

Keyword : Murals Painting, Residential Area, Regeneration

1. 서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현재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도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주거지라 함은 아파트를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들이 그러하듯이 사람이 기거하는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들의 수명은 짧게는 수 십 년 이상이며, 백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거지는 1950년대 이후 지어진 구시가지와 2000년대 들어 첨단공법의 초고층 아파트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시개발은 신시가지 개발과 노후 지역을 재개발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대단위 개발의 문제점이 대두 되면서 최근에는 기존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는 도시 재생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후주거지의 재생작업을 통한 마을활성화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후주거지 재생방법으로 벽화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주거지에 벽화를 도입하여 비교적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한 두 곳의 성공사례를 모방하여 급속히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노후주거지 마을의 벽면에 벽화가 그려지고, 벽화마을로 불리는 곳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벽화제작 방법과 제작 재료의 단순화, 무계획적 시행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대부분의 벽화마을들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들과는 상이한 환경을 갖고 있다. 주거 건축물들이 50여 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자연부락으로 지리적 입지도 좋지 않은 고지대에 위치하거나, 좁은 골목길로 이어진 복잡하고 불편한 환경이다. 또한 합법적 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있어 제도적 개발의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로 환경개선과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벽화를 선택하고 공공미술이라는 수식어로 치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 재생방법으로 활용된 벽화가 그려진 일명 벽화마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벽화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벽화가 제작될 수 있는 개선 요인을 찾아내어 보다 효과적인 벽화 활용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후주거지 재생과 벽화

2.1. 노후주거지 재생의 의미

노후주거지 재생이라 함은 본 연구논문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로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연계한 부분적 개념이다. 도시재생은 대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성장을 억제하고, 쇠퇴한 도심부의 재활성화를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에 관련된 과정적 활동으로서 이해관계의 합의 형성 등 의사결정 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¹⁾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21세기 도시발전의 근간 변화에 따른 대책 요구로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 형성에 따른 기술적 변화에 대한 도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경오염, 자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전략과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지 재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²⁾ 도시경쟁의 원천이 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환경, 역사보존, 주민참여와 같은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여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기 보다는 활용의 필요성이 심화되었고, 자연을 파괴하기 보다는 자연을 보존하지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철거개발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도시 내 주택문제의 해결과 불량한 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공급 중심의 물리적 목표는 과밀, 혼잡, 공공성의 약화,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철거개발의 한계와 불량 노후주거지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노후주거지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의 사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노후주거지 재생이라고 규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시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1) 도시재생사업단, 연구보고서, 2006.

2) 강자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3

열악한 산동네이거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비탈진 골목길, 불량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노후주거지는 기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되어야 하는 공공적 과제를 안고 있다.

2.2. 벽화에 대한 이해와 공공성

벽화는 벽화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던 인류의 예술적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벽화는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사원이나 성당의 종교적 벽화, 고궁의 기하학 무늬의 벽화, 현대 도시의 벽화로 불리는 슈퍼그래픽까지 우리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현대의 도시벽화는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장소를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벽화는 아름다운 형태와 색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주거공간의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담이나 건물의 벽면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따뜻하고 훈훈한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도시벽화의 유명한 사례로는 멕시코 벽화운동을 꼽는다. 멕시코 벽화는 20세기에 들어와 멕시코 혁명과 대중예술운동의 산물이다. 특권 계층만이 소유하고 있던 예술을 대중화시키고자 했던 예술운동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멕시코 문화를 찾으려는 민족주의적인 사회, 문화운동으로³⁾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대표적인 작가들은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멕시코 벽화운동은 세계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하는 공공미술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거치면서 벽화는 현대 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지고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오늘날 도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맞물려있으며 문명이 가져다 준 심각한 환경의 문제, 정신적 압박감, 세대 간, 계층 간 격차의 심화, 소외의 확산 등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도시벽화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 하나의 대담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벽화가 낙후된 주거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해법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

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도시의 벽화들은 공공미술로 규정할 수 있다. 공공적 공간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용되는 공간으로서 개인적 의지나 취향에 의해 조직될 수 없는 사회적이며 공적인 공간이다. 공공공간은 휴식, 소통, 교류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기 있는 공간이다.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요구된다.

공공미술의 궁극적 목적이 미술을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의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 마을 벽화의 경우 지역민들의 직·간접적 참여가 이루어져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2.3. 벽화 제작방법에 따른 분류

벽화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 사용된 재료와 제작 기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기법과 재료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제작된 벽화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1]벽화의 분류

프레스코	· 성당이나 교회의 종교화에 사용됨, ·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완벽한 채색방법
도자	· 스페인에서 가장 발달 · 부조의 형태로도 가능
그라피티	· 미국 흑인계에서 출발 · 낙서벽화, 스프레이 캔 아트라고도 불림 · 현대벽화의 한 형식으로 영역 확보
페인팅	· 현대벽화의 중심 재료 · 유성도료와 수성도료, · 아크릴릭 수지 페인트 등

이외에도 우리나라 고궁의 꽃담에서 볼 수 있듯이 벽돌이나 기와 등 건축 재료를 이용하여 개성 있고 독특한 벽화도 있다.

2.4. 노후주거지 재생의 공공성

공공성이란 행위의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혹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일체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노후주거지 재생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행정주체에 의해 정비되어야 하는 것⁵⁾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인식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정부재원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 대

3) 남궁문 멕시코 벽화운동, 시공사, 2000, p.211.

4) 조규빈 도시 조형공간의 벽화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5

5) 강지원, 앞의 책, pp.30-31.

상으로 어떤 형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공공의 개입은 주민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벽화마을의 탄생과 현황

우리나라의 마을벽화는 1980년대 민중운동의 영향으로 도시벽화의 양식이 나타나 사회 계몽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 2000년대 접어들어 취약지역 환경개선의 역할로 변화하면서 마을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벽화의 효율이 인정받으면서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미술 사업이 그 시작이다. 2009년부터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마을벽화가 포함되어 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역사, 지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⁶⁾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불량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이 도입하는 방법이 불량한 벽면과 골목길에 화려한 색채로 벽화를 그려 넣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자체와 지역민 스스로 노후화된 마을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오늘날 수많은 벽화들이 도시와 농촌의 노후화된 마을 담장을 장식하고 있다.

3.1. 노후주거지 벽화마을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주거지는 대개 전쟁과 피난민의 정착, 개발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노후 촌락,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집단이주 등 급격히 인구가 집중되면서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거나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재건축이 금지된 낙후 주거지이다.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으로 미관이 매우 좋지 못하고, 환경이 불량하거나 질병발생 및 화재의 위험도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동안 세계적 도시로 변모한 서울에도 산동네로 불리는 곳이 남아 있다. 6대 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 농어촌에는 건축 되어진지 50여 년이 넘는 마을들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지역을 재개발하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공공디자인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움직임이 벽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벽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되었다.

첫째,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미술을 통해 일 상에서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양질의 삶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및 생활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 마을의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⁷⁾

노후 주거지를 활성화시키고자 벽화사업을 진행한 곳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 관련 서적 과 논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벽화마을 은 전국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비교적 유명세를 타고 있거나 다른 곳의 본보기가 되는 대표적인 7개 벽화마을(표2)을 꼽을 수 있었다.

[표2] 우리나라 대표적 벽화마을⁸⁾

마을 명	특징
고창군 돌음별 마을	2006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지정 서정주 시문학관이 위치함. 국화를 주제로 관광 자원화로 유명
통영 동피랑 마을	2007년 동피랑 색칠하기 전국벽화공모전 철거예정지 동피랑 마을을 관광 명소화 철거계획 취소로 이어짐
문현동 안동네	2008년 공공디자인엑스포 주거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공동묘지에 마을이 형성된 곳
이화동 이화 마을	2009년 문화관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소규모 봉제공장 마을 대학로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
홍제동 개미 마을	2009년 빛 그린 어울림 마을로 탄생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서울의 대표적 산동네
영월 요리골목	오랜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벽화 도입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요리골목 영화 '라디오 스타의 촬영지
경주시 읍천항	2010년 월성원전,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사업 지역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벽화그리기대회 개최

이외에도 짧은 기간 유행처럼 복제되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벽화마을 이외에도 노후 되어 흉물스런 도로변 축대나 벽면을 벽화로 치장하는 일도 전국

7) 송효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 만들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38-41.

8) 인터넷 검색과 지자체 발간 사업보고서를 참고로 재구성

6) <http://www.maeulmisul.org> 참조.

적인 현상이 되었다. 위 7개 벽화마을 이외의 벽화마을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표3과 같으며, 이외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벽화들이 있다.

[표3]전국 벽화마을 현황

번호	벽화마을	번호	벽화마을
1	서울 망원동	2	부산 수정동
3	부산 물만골	4	부산 덕밭골
5	보수동 책방골목	6	부산 안장마을
7	해운대구 우동	8	부산 남부민동
9	대전 대정지구	10	수원 행궁동
11	인천 심정동	12	인천 북성동 청관
13	군포 남덕골	14	군포 죽암마을
15	청주 수암골	16	안성 북거마을
17	정선 화암마을	18	동해 논골마을
19	강릉 내곡동	20	화천군 간척리
21	울산 아음동	22	울진 구산마을
23	창원 당산마을	24	김제 은피리
25	남해 디랭이마을		

3.2. 대표적 벽화마을 사례

우리나라 벽화마을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는 2006년 농림부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지정하면서 서정주 시문학관이 위치한 고창군 부암면 송현리 돌음별마을 전체에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주제로 벽화를 그려놓고 [그림1] 국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평범했던 농촌 마을은 아름다운 예술마을로 변했고, 시인의 체취와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적한 시골마을은 활기가 넘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도 높아졌다고 한다.



[그림1]고창군 돌음별마을 벽화

2007년 통영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좋은 경관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동피랑 마을은 노후한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 시에서 재개발을 위한 철거계획이 확정되었다. 무허가라 보상도 없이 이주가 어려운 주민들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지역단체에 의해 재개발 저지 운동이 일어나고, '색과 그림이 있는 골목'이라는 주제로 벽화 공모전을 벌여 19채의 집과 골목에 벽화

가 그려졌다.[그림2]

동피랑 벽화는 문화 예술의 도시 통영의 지역성을 살린 것 뿐 아니라 퇴색했던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그림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며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이 탄생하였다. 이후 철거계획이 취소되고, 재개발 대상지에서 보존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매 2년마다 벽화공모전을 개최하여 그림을 교체하므로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2]통영 동피랑 벽화

부산의 문현동 안동네는 부산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2008년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자원 봉사자들과 주민들이 동참하여 노후가옥 30여 동의 담 벽에 벽화를 그렸다.[그림3] 주민들은 어둡고 칙칙했던 마을분위기가 벽화로 인해 한결 밝고 활기찬 느낌을 준다고 만족해했다.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주거환경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현동 안동네 벽화사업은 공공예술에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시민참여 형태의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벽화 소재로 다뤘기에 주민들에게는 더욱 친근감을 준다. 이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간을 스스로 가꾸고 디자인 했다는 자긍심과 아울러 지역에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게 된 좋은 사례이다.



[그림3]문현동 안동네 벽화

서울의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이화마을은 대학로와 낙산 사이에서 낙후된 채 섬처럼 고립된 동네이다. 판자촌을 바탕으로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들어선 소외된 지역이었다. 2009년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한 낙산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단위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실행되었다.[그림4]

이화동의 벽화작업은 지역자치단체와의 교류가 미흡하여 현재 방치된 상태이다. 현재는 훼손된 벽화들로 미관상 좋지 못하고, 벽화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벽화마을이라는 이미지는 좀 약한 편이다.



[그림4]낙산 이화동 벽화

또한 서울에서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한 개미마을이 있다. 주민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간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6. 25 전쟁 이후 형성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았다. 2006년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고지대로 접근성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마을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벽화마을이 조성되었다.

서대문구와 금호건설의 지원 아래 '빛 그린 어울림 마을'이라는 주제로 주택가 담장 등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그림5]



[그림5]홍제동 개미마을 벽화

서대문구는 1960~70년대 풍경을 간직한 개미마을 경관을 보존해 영화촬영 장소로 만들고 문화예술인들을 불러 모아 문화특구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점차적으로 이주시킬 계획도 함께 갖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요리골목이 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삶과 애환이 깃든 공간으로 탄광지역의 몰락에 따라 지역경제는 위기를 맞았고 한동안 침체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러한 오랜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을 도입하여 영월읍 영월리에 벽화를 그려 넣어 벽화 요리골목이 되었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렀다.[그림6]

이곳 벽화의 특징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화석화된 미술관이 아니라 이곳 역사인 탄광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 현재 요리골목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의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영화 라디오 스타의 촬영지로 영화의 주인공들도 등장하고, 요리골목을 상징하는 그림들도 등장한다.

영월의 요리골목 벽화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도시 공간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6]영월 요리골목 벽화

신라의 고도 경주의 바닷가 읍천항은 경주시내 보다는 오히려 울산에 가까운 작은 포구이다. 위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근접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월성 원자력본부 주관으로 2010년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벽화그리기대회를 개최하여 50여 점의 벽화를 마을 입구에서부터 해안 길까지 2Km의 길 담 벽과 건물에 벽화를 그렸다. 추상철리가 있는 해안과 어울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2011년 제2회 벽화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금은 120점 가량의 벽화가 바닷가 마을과 어울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그림7]경주 읍천항 벽화

이상 7곳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벽화마을의 현황과 제작과정, 제작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사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벽화마을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마을 주거지 건물들이 노후 되었어도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둘째, 주민들의 소득이 낮아 다른 곳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셋째, 대부분의 벽화들이 페인팅 기법에 의해 짧은 기간에 제작되었다.

넷째, 벽화가 기존 벽면에 가공처리 없이 제작되어 보존성이 떨어진다.

3.3. 문제제기

위에서 제기된 벽화마을 벽화의 4가지 특징들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변해나간 벽화에 대한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인류 탄생과 더불어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하여 온 벽화가 현대에 와서 단순히 노후 되고 불량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을 화려한 채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단지 환경미화 수준에 머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마을벽화는 장소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그려진 벽화는 또 하나의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나 원색의 물감을 함부로 칠한다면 이는 창작이 아니라 훼손이며 파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⁹⁾

노후주거지 벽화마을의 벽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려지고, 벽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참고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4. 마을벽화 제작 참고사례

벽이란, 원래 사람의 주거지를 정하고 자연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받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벽의 의미는 가둠과 갇힘의 의미가 되었다.¹⁰⁾ 그간 사람을 가두고, 생각을 가두어 소통을 방해하던 '벽'이 요즘 들어 벽화라는 옷을 입고, 정보를 나누거나 소통하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제작되어진 노후 마을의 벽화는 낙후된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면서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화려한 색채로 채색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방법만으로는 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보다 효율적인 벽화사업 방안을 대구 삼덕동의 사례에서 찾아본다.

담장 허물기로 유명한 대구 삼덕동의 벽화는 페인팅 기법 이외에 타일,[그림8] 병뚜껑, 동전[그림9] 등 재료의 다양화와 동굴벽화와 꽃담[그림10]의 현대적 재현 등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킨 점은 페인팅 기법으로 일원화된 마을벽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8]대구 삼덕동 타일벽화



[그림9]대구 삼덕동 동전벽화



[그림10]대구 삼덕동 꽃담 벽화

10) 고성종,고필중, 도시환경과 벽화디자인, 미진사, 2003, p.4.

9) 이종규, 공공미술과 마을벽화, 2011. 4. 22, 경인일보.

삼덕동의 마을 만들기는 대구의 대표적 구시가지로, 1910년 도로정비와 함께 집단주거지가 형성되었고, 1960년대에는 최고의 부촌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나 2006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삼덕동 마을 만들기 운동은 '담장 허물기'로 시작되어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서 벽화작업이 시작되었다.

벽화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자신의 벽을 독립된 벽으로 바라보지 않고 골목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화색 벽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마을의 첫 번째 벽화로 작은 물물교환센터인 녹색 가게는 물건만 교류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그 취지를 살려 병뚜껑을 활용한 벽화(그림11)를 제작했다.¹¹⁾



[그림11]대구 삼덕동 병뚜껑벽화

삼덕동 벽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거나 넓은 벽면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입체와 평면간의 어울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다. 삼덕동 벽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페인트 중심의 벽화가 없다.

둘째, 집과 골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환경의 일부로 존재한다.

셋째, 주민들과 협의로서 이루어졌다.

넷째, 저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쉽게 퇴색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였다.

여섯째, 총감독과 작가, 자원봉사자가 함께 제작.

일곱째, 오랜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제작했다.¹²⁾는 삼덕동 벽화의 특징들은 기존 노후주거지 벽화마을의

11)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2010, 한울, pp.50-51.

12) 김은희 김경민, 앞의 책, pp.5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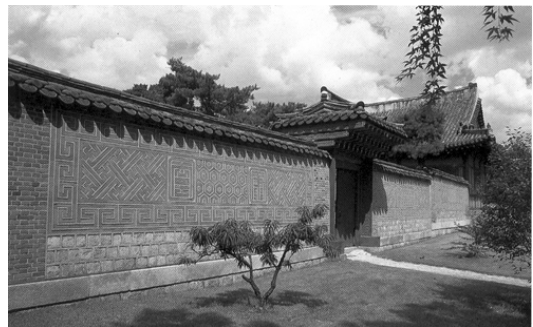
벽화를 개선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집의 벽이나 담장에 여러 가지 무늬를 놓아 독특한 치장을 하였고 이것을 꽃담이라고 한다. 지금도 볼 수 있는 옛 궁궐의 꽃담 [그림12, 13]은 화려하되 아하지 않고 은근한 멋을 풍긴다. 민가의 토담에 꼭꼭 박아 놓은 기와조각의 질박한 무늬에 구수한 한국인의 심성이 그대로 배어 있어 그윽한 정취를 풍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꽃담 울타리 쌓기를 좋아했고 그 아름다움을 즐겼다.¹³⁾

꽃담은 우리나라 고유의 담장으로 타일벽화와는 구분되어지는 것으로서 전돌과 기와 등을 벽면에 치장한 형태로 경직된 울타리에 부드럽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림12]창경궁 낙선재 만월문 꽃담



[그림13]창경궁 낙선재 꽃담

4. 결론

현재 전국적으로 신재한 벽화마을들은 대부분이 1960년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개발제한이 풀렸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을 하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며,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워 개발이 되지 못한 지역이다. 주거환경도 현대를 살아가는 평균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은 생각할 수도 없다. 마을이 형성된

13) 조장현, 꽃담, 대원사, 1989, pp.62-66.

지 50년이 넘어 접근로조차 열악하여 차량의 출입도 불편한 곳이 많다.

이렇듯 낙후된 마을이지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지가 벽화라는 매개체로 등장하였으나, 그 과정과 방법이 일방적이고, 단기간에 손쉬운 방법으로 진행하였기에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존 벽화마을의 벽화들은 대부분 페인팅 기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되었다. 페인팅 작업 이전에 밑바탕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함으로 벽화의 수명이 짧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음의 취지와는 멀어지고, 또 다른 시각적 공해로 전락한다. 통영 동피랑 마을과 경주 읍천항의 경우 지속적 벽화그리기대회를 통하여 벽화를 보완하고 있으나 주제가 일정하지 못하여 마을이미지 관리에 지속성이 떨어진다. 또한 벽화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생활 침해라는 또 다른 불편으로 다가왔다. 노후주거지에 벽화를 도입하여 주거지 문화를 활성화 시켜 주민들의 삶의 격차해소를 위하여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벽이라는 것은 주거공간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벽' 자체에 대한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벽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과도한 치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산재한 벽화마을들은 노후주거지 재생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보다 효율적인 벽화를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하여 대구 삼덕동의 사례와 우리나라 전통 꽃담의 장점을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한다.

첫째, 주민 주도의 벽화제작 사업으로 시행되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기적 플랜으로 투자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셋째,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환경의 일부로서의 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벽화제작 재료의 다양화와 장기 보존이 가능한 재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다섯째, 벽화의 작품성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벽화를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에 보다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며, 쉽게 잊히지 않는 벽화마을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지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고성종·고필중, 도시 환경과 벽화 디자인, 미진사, 2003.
-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한울, 2010.
- 남궁문, 멕시코 벽화운동, 시공사, 2000.
- 도시재생사업단, 연구보고서, 2006.
- 안청자,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획단, 2010.
- 이정현·김경수·이동현·강성권, 부산시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9.
- 송효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만들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양성모, 공공미술에 있어 현대벽화의 기능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양안섭, 도시재생사업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대응,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구, 공공미술과 마을벽화, 경인일보, 2011. 4. 11.
- 일본건축학회, 김영하 역, 건축 도시재생의 실현과 환경디자인, 기문당, 2010.
- 조규빈, 도시 조형공간의 벽화 연구,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조정현, 꽃담, 대원사, 1989.
- 진양교, 기억과 상징으로의 여행-43 도시재생공원, ELA Korea, 2000.
- DK 편집부, 세계미술의 역사, 시공아트, 2009.
- <http://www.maeulmisul.org>

전자우편: kimki@deu.ac.kr

원고접수일: 2011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6일

게재결정일: 2011년 12월 23일

3명의 익명(匿名)에 의한 심사.